



미국,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시행방안 확정과 시사점

이아름 연구원

■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국(OCC) 등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¹⁾(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 최종안을 가결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은 은행들의 특정 자산 보유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예방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임.
- 미국 감독당국은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바젤 III²⁾에서 요구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채택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은 은행별 자산 규모에 따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분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7년 전면 시행될 예정임.

- 확정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은 2015년 80%, 2016년 90%, 2017년 100%를 도입하기로 되어 바젤III 은행 자본 규정의 전면 시행일보다 2년 앞섬.
 - 2013년 1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19년까지 은행들이 전면 시행하도록 요구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은 총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를 상회하거나 해외 신용 노출금액(foreign exposure)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ies, BHCs),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지주회사의 예금수취 자회사에 적용됨.
- 반면,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 2,500억 달러 미만의 은행지주회사와 저축대부조합지주회사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고유동성자산 보유규모/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100,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대규모 인출, 무담보 도매자금조달 중단, 담보가치 할인율 큰 폭 상승, 파생거래 관련 추가담보 요구 등으로 단기유동성 위기 시 은행이 자력으로 최소 30일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의 10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 비율임.

2)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 등을 중심으로 2010년 12월 바젤III 최종안을 확정함.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에 대해서는 최소 21일간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여 다소 완화된 유동성비율이 적용될 예정임.

- 2,500억 달러 미만의 은행지주회사들의 경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2016년에 최초 도입될 예정임.

- 한편, 외국계 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상인 일부 외국계 은행은 규제를 받음.

- 500억 달러 이상인 외국계 은행들은 향후 동 규제안과 유사한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임.

- 또한, 연준은 AIG, GE Capital 등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만 비은행으로 분류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마련할 예정임.

■ **확정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의 단기유동성비율 충족을 위해서 미국 대형 은행들은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고유동성자산(High-Quality Liquid Asset, HQLA)³⁾을 보유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고유동성자산의 추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 확정에 따라 미국 대형 은행들이 보유해야할 고유동성자산은 2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은행들은 2014년 2/4분기 기준 약 1,000억 달러(약 101조 8,600억 원) 정도의 고유동성자산을 추가 확보해야 할 전망이다.
- 한편, 연준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비롯한 약 70%의 은행들은 이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으로 인해 미국 대형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은행들도 2015년 1월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이 적용될 예정으로 자산 및 부채 운용 등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로 인해 미국 대형 은행들은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은행 대출 억제로 수익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은행들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 도입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동 규제안이 향후 대출과 투자 등 자산 및 부채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WSJ, FT 등)

3)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국채 및 회사채 등 유동성 위기사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일컫음.